

# 개나리 입학식

김영철 작사  
송택동 작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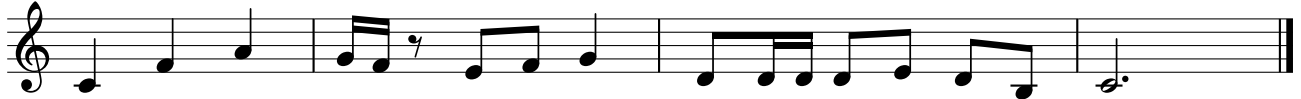
햇살이 잘 — 내려앉은야트막한 담장결 — 에  
처 — 음 만 — 난 — 사이지만금세친구가되어

5



선생님 신호에 따라 줄을서던아이들 — 이  
장난치며손뼉치며히히호호 — 갈 — 갈

9



엄마 눈 놓지 못하고 자꾸만돌아봄니다  
노랄게물든바다에 웃음파도출렁입니다

\* 해마다 새봄이 되면 작고 예쁜 담장 학교에  
입학식이 열리지요.  
엄마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한가 봐요.  
처음 학교에 온 아이들이 불안한지  
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며 엄마를 찾아요.  
그러나 착한 아이들은 금방 친해져서  
서로 잘 어울려 놀아요.  
노란 바다에 해맑은 미소가 파도 되어 출렁거려요.

